



주간통일정세 2009-48(2009.11.23 ~ 11.29)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09-48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군부대 산하 농장·목장 현지지도(11/29, 조선중앙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인민군 근위서울 류경수 제105탱크사단이 운영하는 염소목장과 제1596군부대 산하 목화농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9일 보도
 - 염소목장을 방문한 김 위원장은 “최근 여러 군부대에서 염소목장, 소목장, 토끼목장을 비롯한 현대적인 목장들을 세워 많은 젖과 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인민군대처럼 당 정책관철에 대한 절대성의 정신을 발휘한다면서 우리나라 그 어디에서나 염소 떼가 육실거리게 할 수 있다”면서 염소사육을 전군중적 운동으로 벌여야 한다고 강조
 - 이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제1596군부대 산하 목화농장을 방문해 ‘목화농사의 기계화’를 강조하면서 “우리 식의 경작체계를 완성하는 것과 함께 선진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보도
 - 현지지도에는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리영호 총참모장 등이 동행

- **김정일, 해군 연합부대 지휘부 시찰(11/27,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해군 제587연합부대 지휘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 북한의 해군 제587연합부대는 남포시에 위치한 서해함대사령부로 알려짐.
 - 통신은 보도에서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해군 제587연합부대 지휘부를 시찰했다”며 “전투기술기재들과 해병들의 훈련을 보시면서 올해 훈련강령 집행과 새 년도 훈련준비 정형을 구체적으로 요해(파악)했다”고 보도
 - 시찰에는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정각 총정치국 제1부국장, 리영호 총참모장, 현철해. 리명수 대장 등 북한군 수뇌부가 총출동

- **北매체, 김정일 중국방부장 면담 보도(11/26,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방북중인 중국의 량광례(梁光烈) 국방부장을 면담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언론매체들이 26일 보도, 이들 매체는 “김정일 동지께서 25일 조선을 방문하고 있는 중



화인민공화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인 상장 량광례와 그의 일행을 접견했다”고 보도

- 북한 매체들은 또 “중국 국방부장은 김정일 동지께 보내온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자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후진타오 동지의 인사를 정중히 전해드렸다”며 “김정일 동지는 이에 사의를 표하시고 후진타오 동지에게 인사를 전하신 다음 량광례와 따뜻하고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담화를 했다”고 소개, 이 자리에는 북측에서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등이, 중국측에서는 류샤오밍(劉曉明) 주북 중국대사가 배석

● 김정일, 평북 공장-기업소 현지지도(11/25, 조선중앙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안북도의 공장, 기업소들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5일 보도, 김 위원장은 양책 베어링공장을 둘러보고 “기계제작공업을 비롯한 나라의 공업 발전에서 베어링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과업을 제시했다고 방송은 보도
- 김 위원장은 또 신의주 신발공장에서 생산공정들을 돌아보고 기술장비와 생산 상황을 파악, 이어 김 위원장은 신의주 초물생산협동조합을 방문해 조합 관리운영 상황을 파악하고 여러 가지 초물 제품(폴대, 풀잎, 나무껍질, 노끈 등을 걸어서 만든 제품)을 살펴봄.
- 김 위원장은 개건 확장된 신의주 닭공장에도 가 “방역시설들을 충분히 갖추고 엄격한 방역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지적하고 “더 많은 고기와 알을 생산하자면 현대적 기술에 기초한 과학적인 경영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
- 현지지도에는 김평해 평안북도 당 책임비서,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 비서, 박남기 당 중앙위 부장, 장성택 당 행정부장 등이 수행

● 김정일, 평북 공구공장 현지지도(11/24, 조선중앙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안북도 운산공구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4일 보도
- 김 위원장은 드릴 생산라인 등 공장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기계제작공업의 기초인 공구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것은 기계공업발전을 위한 선결조건인 하나”라며 “공구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공구공장의 기술개선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진행하여 그 면모를 근본적으로 일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방송은 전연
- 그는 “운산공구공장의 기술개선공사를 단기간에 끝내기 위해서는 평안북도에서 여기에 총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내각을 비롯한 성, 중앙기관과 과학연구기관들의 지도방조를 강화해야 한다”며 운산공구공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강조
- 현지지도에는 김평해 평안북도 당 책임비서,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박남기 당 중앙위 부장, 장성택 당 행정부장 등이 동행



- **김정일, 4월 지방 방문때 김정은 동행(11/29, 마이니치신문)**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4월 원산지역을 방문했을 때 후계자로 거명되는 3남 김정은이 수행한 사실이 문서로 밝혀졌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9일 베이징발로 보도
 - 마이니치신문은 김정일의 지방지도에 김정은이 수행한 것이 문서로 드러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이는 김정은의 후계 작업을 위해 활동 기록의 보존이 시작된 것이라고 분석, 신문이 입수한 북한 내부 문서에는 ‘김정은 대장동지에 관해 발표된 최초 공개문서’라고 명기돼 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4월 26일 원산농업대학을 방문했을 때 작성됐다고 신문은 전언
 - 이 문서에 명기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발언에는 “오늘 김 대장(김정은)과 함께 이곳에 왔다. 원산농업대학은 수령님(김일성)과 김정숙 어머니, 나와 김 대장에게 영광의 대학이다”라고 돼 있어 김정은의 존재를 명백히 했음.
 - 당시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와 장성택 당 행정부장, 박남기 당 중앙위 부장 등과 함께 원산 농업대학을 현지지도 했다고 보도했으나 김정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음.
 - 마이니치신문은 베이징의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원산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문서는 당시 노동당 선전선동부의 실무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나. 정치 관련

- **노동신문, 北 할바 다했다(11/2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8일 ‘변해야 할 대상은 과연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남측 당국의 “반통일적인 입장과 자세가 꼬물만큼도 달라진 것이 없다”며 태도변화를 촉구
 - 신문은 “남조선 당국이 북남관계 문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마땅히 우리의 정당한 조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야 옳다”면서 “우리는 북남관계 개선을 위해 자기 할 바를 다했으며 이제는 남조선 당국이 그에 응해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 또 “지금 우리의 성의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남관계가 갈수록 험악하게 변해지고 있는 것은 동족대결 정책을 변함없이 추구하고 있는 통일부의 반통일 망동 때문”이라며 현인택 장관과 통일부의 정책 변화가 없이는 “북남관계가 한치도 앞으로 전진할 수 없다”고 주장
- **北, ‘재일동포 방북 전담’ 재일동포사업국 발족(11/27, 조선신보)**
 - 북한이 지난 9월 해외동포의 방북사업을 총괄하는 내각 산하 ‘해외동포사업국’에서 재일동포 업무를 분리, 이를 전담하는 ‘재일동포사업국’을 따로 내은 것으로 확인됨. 조선신보는 27일 신설된 재일동포



사업국의 황도식(62) 국장과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힘. 새로 발족한 재일동포사업국은 말 그대로 방북한 재일동포들에 관한 업무를 전담

- 32년간 재일동포 업무를 관장해온 황도식 국장은 “우리는 총련과 재일동포들과의 사업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조국으로 오는 재일동포들의 편의를 성의껏 보장해 줄 것”이라고 답변

● 北현철해, 김정일의 ‘그림자’(11/27, 동아일보)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공개 활동에 한결같이 동행한 수행원은 현철해 인민군 총정치국 상무부국장이라고 동아일보가 27일 보도
- 매체에 따르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0년 1월 1일부터 올해 11월 26일까지 10년 동안 현지지도와 같은 공개 활동을 한 것은 모두 1000회인 것으로 집계됨. 1년에 평균 100차례의 공개 활동을 한 셈이며, 올해의 경우 연간 기록으로는 가장 많은 142회나 외부에 모습을 드러냈음.
- 10년 동안 김 위원장을 수행한 수행원은 모두 119명이며 연인원(개인별 누적 횟수 합계)은 4474명으로 집계, 이 가운데 10년 동안 100회 이상 수행한 사람은 모두 12명임. 현철해 인민군 총정치국 상무부국장은 10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수행 횟수에서 수위를 지킴. 그는 모두 435회 수행한 것으로 집계됨. 이어 이명수 국방위원회 행정국장(359회), 김기남 노동당 비서(306회) 등도 한결같이 김 위원장의 곁을 지킴.
- 김 위원장의 매제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은 10년 동안 197회 수행해 6위에 올랐다. 그는 2000년부터 활발하게 수행했지만 권력을 추구한다는 김 위원장의 의심을 받아 철직됐던 2004년과 2005년에는 한 번도 동행하지 못했다. 그는 2006년 다시 수행원으로 등장해 올해는 총 72회로 2위를 차지

● 한성렬, 27일부터 UN 北대표부 근무(11/26, 미국의소리 방송)

-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에 새로 부임하는 한성렬 차석대사가 27일(미국시간)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6일 보도, 방송은 ‘북한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을 인용, “지난 10일 뉴욕에 도착한 한성렬 차석대사가 전임자인 김명길 공사와 업무 인수인계를 모두 마쳤다”고 보도
- VOA는 “앞서 한 차석대사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유엔대표부에 근무했고 앞으로 미국 정부와의 양자 대화 등 미·북 간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며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는 신선호 대사를 중심으로 박덕훈 차석대사가 유엔 업무를, 한성렬 차석대사가 대미 업무를 맡는 체제”라고 소개, 방송은 이어 “전임 김명길 공사는 25일 북한으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고 소개
- 한 신임 차석대사는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근무 시절 6자회담에 관



여하며 북미간 채널 역할을 수행, 한 차석대사는 바이든 부통령을 비롯해 미국 민주당 안에 상당한 인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특히 바이든 부통령은 미 정부의 대북 압박 정책이 고조되던 2004년 당시 상원의원으로서 한성렬의 워싱턴 방문을 위해 공화당 정부를 앞장서 설득했던 인연을 갖고 있음.

● **北, 南당국, 금강산관광 안 하려는 속셈(11/25, 아태평화위 대변인 담화; 연합)**

-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25일 금강산 관광 재개 논란과 관련, “통일부를 비롯한 남측 당국의 속셈은 금강산 관광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
- 아태평화위 대변인은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이 민간업자와의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금강산 관광사업은 처음부터 남조선 당국과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태가 남측의 현대와 시작하고 오늘까지 이어온 사업”이라고 주장, 담화는 지난 8월 현대그룹과 아태평화위의 공동보도문에 이어 최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게 전달된 북측의 당국간 회담 제안을, 남한 정부가 ‘민간을 통한 제안이어서 인정할 수 없다’며 무시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보임.
- 아태평화위 대변인은 또 “민간업자와 한 합의이기 때문에 관광재개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생트집”이라며 “통일부는 민간과 한 합의는 인정할 수 없다면서 지난 8월 아태와 현대 사이의 합의 가운데 이산가족 상봉 문제만은 적십자를 내세워 받아 물고 추석을 계기로 전격적으로 진행했다”고 지적
- 대변인은 남측이 요구한 관광 재개의 3대 요건에 대해서도 “우리는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견지에서 즉시 유감 표시를 하고 진상에 대한 해명도 했다”며 “지난 8월 우리 최고 수뇌부의 특별지시에 따라 금강산 관광객들의 신변안전과 재발방지 문제에 대한 담보까지 해줬다”고 주장, 이어 관광 대가의 현물지급 방식에 관해 “세계 그 어디에 관광객들이 관광료를 물건짜으로 지불하면서 관광하는 데가 있는가”라며 “해괴한 발상”이라고 일축
- 대변인은 금강산 관광 대가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전용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기 이전에 핵동력 공업의 기초를 축성하고 인공위성 ‘광명성 1호’를 쏘아올려 오늘의 핵강국 지위에까지 오르게 됐다”고 반박
- 또 “남조선 현 당국은 관광 재개 문제를 통해 화해협력 방해자의 정체를 드러냈다”며 “현인택과 같은 반통일분자들이 통일부에 틀고 앉아 있는 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수 없고 북남 관계도 개선될 수 없다는 것은 두 말할 것도 없다”고 강변
- 그러나 대변인은 “금강산 관광은 화해와 협력, 통일을 바라는 민족의 염원을 반영한 것으로서 반통일 분자가 제동을 건다고 하여 그만



두게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혀 여전히 관광재개를 희망하고 있음을 내비침.

● 北, 한국정부 겨냥해 ‘괴뢰’ 표현 재등장(11/24, 민주조선)

- 북한 매체가 우리 정부를 겨냥해 다시 “괴뢰”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 북한은 지난 8월 말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단’이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고 돌아간 뒤 정부나 이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는 “괴뢰”, “역도” 등의 표현을 자제해왔음.
- 민주조선은 24일 논평에서 우리 정부가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에 대해 “괴뢰들의 ‘인권’ 소동은 우리 공화국(북)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괴뢰들이야말로 적대감이 골수에 차 있는 반통일 역적 무리”라고 언급
- 북한은 이와 함께 최근 현인택 통일부 장관의 이름으로 “‘현’명하지 못한 ‘인’간의 선‘택’”(우리민족끼리)이란 삼행시까지 짓는 등 현 장관에 대한 공격도 강화, 북한은 그러나 아직까지 이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지는 않고 있음.

● 北, 사형 가능한 일반범죄 증가(11/24, 연합)

- 북한이 지난 2007년 형법 부칙(附則)을 제정, 최고 사형이 가능한 일반 범죄의 종류를 늘린 것으로 뒤늦게 밝혀짐. 부칙 제정 이전의 기존 북한 형법은 반국가범죄(내란, 테러행위, 공화국 전복탈출, 민족반역행위)와 고의살인죄 등 5가지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을 규정했었음.
- 23일 박정원 국민대 법대 교수가 최근 입수한 북한 형법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채택한 형법 부칙(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2483호)은 23개 조문에 걸쳐 새로운 범죄 처벌 규정을 도입, 특히 가운데 16개 조문에 규정된 범죄가 ‘극히 무거운 형태’이거나 ‘특히 무거운 형태’인 경우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음.
- 예를 들어 제11조는 ‘극히 무거운 형태의 마약밀수, 밀매’에 대해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하며, 제17조는 ‘특히 무거운 형태의 불량자행위죄’에 대해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음.
- 이밖에 부칙에는 경제범죄 처벌과 관련, 외화도피죄(제9조)와 건설법규침해죄(제10조), 비법적인 영업죄(제18조) 등이 신설, 다른 나라에서 사는 사람에 대한 비법협조죄(제13조)도 마련됐음.
- 부칙 제19~21조는 각각 특히 무거운 형태의 고의적 중상해죄, 극히 무거운 형태의 유괴죄, 특히 무거운 형태의 강간죄를 규정해 해당 범죄자를 처벌토록 했음.

● 北, 북미간 평화보장체계 수립 촉구(11/2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3일 ‘평화보장 체계 수립이 급선무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조선반도에서 대결과 충돌을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조·미(북한-미국) 사이의 정전 상태를 끝장내고 평화보장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 신문은 ‘대청해전’을 거론하면서 “이번 무장충돌 사건이 그 절박성을 입증해 준다”고 강조

- 노동신문은 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하루 빨리 바꾸는 것은 조선반도에 새로운 평화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불안정한 현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방도이며 여기에서 기본 책임을 지니고 있는 당사자는 미국”이라고 지적, 또 “평화보장 체계 수립의 문제는 미국의 입장과 태도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며 “조선반도에 존재하는 전쟁위험 제거와 북남 사이의 무장충돌 방지 문제는 미국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철회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때라야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

● 노동신문, 南 인권결의안 공동제안 비난(11/2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3일 ‘인권 말살자들의 가소로운 정치광대극’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남한 정부의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에 대해 “북남 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대결을 격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
- 신문은 “남조선 당국이 북남 대결 소동을 갈수록 악랄하게 벌이고 있다”면서 “(공동제안국 참여는) 우리에게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고 또 하나의 용납 못할 정치적 도발”이라고 주장, 또 “이번의 ‘북 인권결의안’ 공동제안 책동도 동족 대결을 인권문제로까지 확대시키고 북남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넣기 위한 범죄적 목적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라며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이 반공화국 대결 소동에 기승을 부리는 한 북남 관계 개선은 결코 기대할 수 없다”고 언급
- 신문은 이어 “우리는 갈수록 더욱 무분별해지고 있는 괴뢰들의 반통일 대결 책동을 절대로 용납치 않을 것이고 단단히 계산할 것”이라고 경고, 신문은 “우리의 존엄 높은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인권문제란 애당초 제기조차 될 수 없다”며 “이것은 우리 공화국을 편견없이 대하는 세계의 공정한 사회여론도 충분히 인정하고 있는 문제”라고 항변

다. 경제 관련

● 北, FAO, 식량위기 대처 국제환경 마련해야(11/25,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 북한은 11월 20일 열린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총회 제36차 회의에서 “FAO가 무엇보다도 식량위기, 금융경제위기에 대처하여 지속적인 농업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는 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북한의 언론매체들이 25일



보도

-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이 회의에 참석한 북한 대표단 단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 정부는 자주, 평화, 친선의 이념에 따라 앞으로도 유엔 농업식량기구와 모든 성원국들과 친선협조 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킬 것이며 세계 식량안전 보장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도 적극 기여할 것”이라며 이같이 촉구
- 단장은 또 “발전도상 나라들의 농업 발전을 위한 활동계획들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면서 “성원국들에서 자체의 실정에 맞게 농업 전략과 정책을 세우고 농업 생산력을 더욱 높이기 위한 사회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는 데 응당한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이라고 FAO에 주문

● 북한서 ‘자본주의 상징’ 청바지 만든다(11/25, 자유아시아방송)

- 스웨덴 의류업체인 ‘노코 진스’가 북한 내 위탁가공으로 생산한 청바지 1천 벌을 다음 달 4일부터 스웨덴에서 판매한다고 발표한 것으로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보도, RFA보도에 따르면 노코 진스가 시판하는 북한산 청바지는 남녀용 각 2종으로 이 회사 공동대표 3명이 직접 디자인한 것임. 노코 진스의 주문에 따라 전량 수출용으로 만들어진 북한산 청바지의 판매 가격은 알려지지 않음.
- 회사의 제이콥 애스트롬 공동대표는 RFA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고급 기술이 큰 장점이지만 하나 북한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청바지라는 희소성 때문에 더 특별한 상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
- 이 회사는 청바지 착용을 금지하는 북한에 진출하기 위해 상당한 공을 들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다 작년 7월 스웨덴 주재 북한대사관과 협상을 벌여 어렵게 북한진출 계약을 따냈다고 RFA는 설명

● 北 올해 식량 150만t 부족(11/24, 연합)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권태진 선임연구원은 24일 “북한은 올해 작황이 나빠 최대 150만t 정도 식량이 부족하며 따라서 당분간 외부의 긴급 식량지원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밝힘.
- 권 선임연구원은 “올해 북한의 곡물 소요량은 520만t 정도로 추정되는데 비료 부족과 나쁜 기상여건으로 인해 올해 곡물생산량은 작년의 431만t보다 10%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
- 나기 샤피크 전 세계보건기구(WHO) 평양사무소 프로젝트 매니저도 “6세 이하 북한 어린이의 3분의 1 가량이 만성 영양실조이고 여성의 30%가 빈혈증세를 보이고 있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건 시스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 올해 6월까지 8년간 평양에 상주한 그는 그러나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지원으로 1998년과 2004년 사이 발육을 저해할 정도의 만성 영양실조는 전체 아동의 62%에서 37%로,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 영양실조는 16%에서 7%로 감소했다”고 설명



- 경기도의 이승신 남북협력담당관은 남북 보건의료협력의 모범 사례를 소개하면서 “2008년부터 경기도와 북한이 말라리아 공동 방역을 추진한 결과, 2008년 한 해 동안 남한 전체의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보다 53% 줄었고, 경기도에서도 51.8% 감소했다”고 설명
- 미국 비정부기구(NGO)인 AFSC의 우나 레일리 대북사업 담당자는 “지난 10여년간 북한 합영농장 4곳과 공동연구를 진행해 북한 실정에 맞는 농업기술을 보급했다”며 “특히 지난해 보급한 논벼 파종 기술로 모든 농장에서 헥타르당 수확량이 0.5t 내지 1t 늘었다”고 전언
- 우나 비센바흐 주한유럽연합(EU) 대표부 부대사는 “1995년부터 EU는 대북 인도지원 사업을 벌여 지금까지 지원 규모가 지난달 현재 3억8천만 유로에 달한다”며 “현재도 트랙터 공급 등 7건의 식량안전 프로젝트가 황해북도, 함경남도, 평안남북도의 21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

● UNDP, 내년 1월 대북사업 재개(11/24, 자유아시아방송)

- 유엔개발계획(UNDP)이 2010년 1월 평양사무소를 다시 열고 대북 사업을 재개한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4일 보도
- 방송은 UNDP의 ‘대북사업보고서’를 인용, “농경 에너지 지원, 농업, 생필품 공급, 통계자료 수집, 인적자원 개발 등 미화 250만 달러(약 29억원) 규모의 6개 대북지원 사업을 내년 초 재개한다”며 “이미 프랑스인인 제모리 사우비지 씨가 평양사무소 대표로 임명됐고 총 18명의 직원이 근무할 예정”이라고 밝힘.
- RFA는 이어 “이달 2일 평양사무소 대표로 임명된 사우비지 대표가 평양으로 가 대표직 수행을 위한 국가 허가증 취득 과정을 북한 외무성을 통해 12일 완료했다”며 “사우비지 대표가 유엔 아동기금(UNICEF),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계획(WFP) 등 북한 주재 유엔기구를 대표하는 조정사무소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
- UNDP 평양사무소에는 국제직원 5명과 북한 현지인 13명이 근무할 예정인데, 평양사무소의 보수공사가 완료돼 장비와 연락체계 준비만 끝나면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방송은 전언
- RFA는 또 “과거의 자금 전용 의혹을 의식해 이번 대북사업은 다른 유엔 기관보다 더 정밀한 감독과 감사를 거칠 것”이라며 “예전과 달리 전반적인 사업이 뉴욕본부의 계획과 통제 아래 추진될 예정”이라고 설명

라. 사회문화 관련

● 평양서 AFC 프로감독 자격강습 개최(11/27, 조선중앙통신)

- 11월 2일부터 22일까지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서 아시아축구연맹(AFC) 프로감독 자격강습이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
- 이번 강습에는 북한 내 AFC A급 감독자격 보유자들과 각급 국가대



표팀 감독들이 참가해 영국과 독일 강사들로부터 강의를 들었음. 통신은 “축구선수들의 육체적 발달을 위한 훈련을 비롯해 여러가지 문제들이 강습에서 취급됐다”고 소개

● 北장애인 예술·체육 교육 확대(12월호, 조국)

- 월간 ‘조국’ 12월호는 ‘새로운 양상을 띠는 장애인보호사업’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이 “장애자들에 대한 회복치료 사업과 함께 사회문화예술 및 체육교육이라는 보다 독특한 형태로 그들의 사회적 참여를 실현시켜 주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
- 잡지에 따르면 지난 5월 평양 대동강구역에 건립된 대동강장애인문화센터에선 성악과 기악, 무용 분야의 전문가들이 장애인들에게 예술 교육을 하고 있다. 주로 특수학교(농아·맹인학교)의 예술소조(동아리) 학생들이 교육 대상임. 이 센터는 장애인들에게 탁구, 활쏘기, 사격을 비롯한 여러 종목의 체육 교육도 실시

2. 대외정세

가. 북·미 관계

● 보즈워스, 오산서 군용기로 방북(11/28,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의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2월 6일 서울에 도착한 뒤 8일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군용기를 이용해 방북할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8일 보도
- 방송은 지난 27일 ‘워싱턴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보즈워스 특별대표, 성 김 북핵 특사, 국무부와 국방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관리로 구성된 소규모 방북단이 6일 서울에 도착해 한국측 관리를 만난 뒤 8일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군용기를 타고 평양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힘.
- RFA는 “보즈워스 특별대표와 미국의 특사단이 군용기를 타고 방북하는 것은 이번 북미간 만남이 ‘협상’이 아닌 ‘접촉’의 성격이 강하고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설득하고자 하기 때문에 미국 측이 언제든지 북미대화를 마치고 평양을 떠나 필요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는 뜻으로 보인다”고 해석
- 방송은 이어 보즈워스 일행이 서울에 도착하는 다음 날인 7일 한국 정부와 방북에 관한 사전협의를 하고 방북을 마친 뒤에도 다시 서울로 와 한국 정부에 방북 내용을 보고·논의하고 일본과 중국, 러시아를 차례로 방문해 방북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소개
- 이와 관련, 외교부 관계자는 “보즈워스 대표가 8일 북한에 들어간다는 것 말고는 아직 구체적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공식적인 일정이 통보된 게 없다”고 밝힘.



● 보즈워스, 평양 2박3일 체류, 일정 길어져(11/23, 연합)

-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평양 체류 일정이 당초 알려진 1박2일보다 길어질 것으로 알려짐. 정부의 고위소식통은 23일 “보즈워스 대표가 8일 평양에 들어가 10일까지 머물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
- 당초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북 일정은 8일부터 9일까지(1박2일)가 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이처럼 체류 일정이 길어짐에 따라 북미 대화의 의미가 강화될 것으로 보임.
- 보즈워스 대표는 평양 방문에 앞서 서울에 들를 예정이며 방북을 마친 이후에도 곧바로 서울로 내려와 방북 결과를 정부 당국에 ‘디브리핑(debriefing)’할 것으로 알려짐. 이어 보즈워스 대표는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들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방북 결과를 설명할 것으로 전해짐.

나. 북·중 관계

● 北인민군 협주단, 中베이징서 공연(11/29, 조선중앙통신)

- 북한 인민군 협주단이 27일 중국 베이징 중국극원에서 초청공연을 가졌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
- 이번 공연은 김정각 북한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의 방중과 량광례(梁光烈) 중국 국방부장의 방북 및 김정일 위원장 면담 등 북·중 양국 간 군사부문 교류가 활발히 전개되는 가운데 이뤄진 것임.
- 군 협주단은 ‘조선인민군가’, ‘중국인민해방군 군가’를 시작으로 혼성 합창 ‘언제나 수령님을 우러러’, 남성4중창 ‘선군의 나의 조국아’ 등을 공연했으며 ‘3대규율 8항주의’ 등 중국노래도 선을 보였음. 중국의 쉬차이허우(徐才厚)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은 공연 관람에 앞서 북한군 협주단 간부들과 면담을 갖고 “두 나라 영도자들의 깊은 관심 속에 중·조(북) 군대들 사이의 관계가 좋게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소개

● 北·中, 나진항, 국제 물류기지 협력개발(11/25, 연합)

- 북한과 중국이 나진항을 중계무역과 보세, 수출가공이 가능한 국제 물류기지로 협력 개발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중국 지린성의 한 소식통은 25일 “지린(吉林)성 발전연구센터 류시밍(劉庶明) 거시경제처장이 최근 공식 석상에서 나진항을 중계무역과 수출 가공, 보세 물류 등 국제 교역 단지로 협력 개발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소개
- 류 처장은 이 자리에서 “나진항을 단순한 동해 진출 항구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다”며 “나진항 중계무역 기지 개발 프로젝트는 이미 북한은 물론 중국 중앙정부의 승인이 난 것”이라고 설명, 그는 이어 “이미 세계화상(華商)연합회와 미국의 모 그룹이 나진항 개발과 관



련, 지린성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며 “투자 규모는 30억 위안(5천억 원)”이라고 전언

- 류 처장은 “나진항을 중계무역 기지로 개조하기 위해 중국 접경지역인 북한의 원정에서 나진까지 폭 9m의 4차로 도로를 개설하고 나진항 기존 부두의 보수·확장과 4번 부두 신축에 양측이 합의했다”며 “나진항이 수출 가공과 보세, 중계 무역 기능을 갖춘 국제적 물류단지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
- 나진항 개발을 위한 자금은 외자 유치를 포함, 중국 측이 조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북·중 양측은 나진항을 통과하는 중국의 선박과 인원에 대한 출입국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한다는 데도 합의

● 北-中 국방부장 회담(11/24, 조선중앙통신)

- 김영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인민무력부장이 24일 방북 중인 중국 량광례(梁光烈)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과 회담을 가졌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통신은 “회담에서 쌍방은 조(북)·중 두 나라 군대들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를 변함없이 발전시킬 데 대하여서와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일련의 문제들에 대하여 깊이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으나 구체적인 회담 내용은 소개하지 않음.
- 회담에는 북한 측에서 박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 심상대 상장, 김수학 중장 등이 참석했고, 중국 측에선 인민해방군 선양(瀋陽)군구 정치위원인 황셴중(黃憲中) 상장, 지난(濟南)군구 부사령관인 풍조거 중장, 난징(南京)군구 부사령관 겸 해군 동해함대 사령관인 서홍명 중장, 난징군구 공군 사령관인 장젠펑(江建曾) 중장, 인민해방군 총정치부 조직부장인 시소량 소장, 총참모부 작전부 부부장인 왕진 소장, 국방부 외사관공실 자샤오닝(賈曉寧) 부주임과 류샤오밍(劉曉明) 주북 중국대사, 주북 중국대사관의 쑤옌펑(孫延風) 국방무관이 참석
- 회담에 앞서 량 부장 일행은 이날 대성산혁명열사릉과 조·중 우의탑에 헌화하고,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했으며,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도 참관했다고 북한 언론은 소개

● 中, 北·美간 대화·접촉지지(11/24, 연합)

- 중국이 12월 8일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을 앞두고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와 접촉을 지지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힘.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중국은 북·미 간 대화가 적극적인 진전을 이룩하길 희망한다”고 언급
- 친 대변인은 북·미 간 대화를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 “북핵 6자회담은 현재 중요한 기회를 맞고 있어 각 당사국이 함께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언급, 그는 “중국은 의장국으로서 줄곧 6자회담 및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노력을 해 왔다”고 강조



- 친 대변인은 또 22일부터 시작된 량광례(梁光烈) 중국 국방부장의 방북과 관련해서는 “양국 군 사이의 통상적인 교류의 일부”이라며 “양국 간 전통적 우호관계를 강화·발전시키고 양국 군 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설명, 그는 “중국은 양국 및 양국군 간의 발전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수호를 위해 공헌할 것”이라고 발표

● **中해역서 구조된 北화물선원 평양 귀환(11/23, 조선중앙통신)**

- 중국 해상에서 조난됐다 중국측에 의해 구조된 북한의 무역화물선 ‘지성 5호’ 선원들이 23일 평양으로 귀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통신은 북한를 떠나 중국으로 가던 ‘지성 5호’가 지난 17일 중국 해상에서 “사나운 풍랑”을 만났으며 “중국 정부와 해당부문 일꾼들은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던 선원들을 위해 긴장한 구조활동을 벌였으며 구원된 선원들의 생활상 편의도 성심성의로 보장해 줌으로써 ‘조·중(북·중) 친선의 해’인 올해에 조선 인민에 대한 중국 인민의 협조정신을 잘 보여주고 전통적인 조·중 친선을 꽃피우는 데 이바지하였다”고 설명
- 통신은 “선원들을 태운 특별비행기가 평양비행장에 도착하였다”고 전했다. 귀환 선원들의 숫자는 밝히지 않았다.
- 앞서 중국 신화통신은 북한 남포항을 출발해 중국 다롄(大連)으로 가던 북한 화물선 ‘길송 5호’가 17일 낮 12시 35분(현지시각) 다롄 인근 해역에서 강풍에 침몰, 6명이 실종되고 14명이 구조됐다고 18일 보도

다. 북·러 관계

● **북·러 과학협조 의정서 조인(11/2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국가과학원은 러시아과학원 시베리아분원과 2009~2011년 과학협조에 관한 의정서를 지난 25일 노보시비르스크에서 조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 조인식에는 북측에서 리성욱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가과학원 대표단이, 러시아측에서 발레리 쿨레쇼프 과학원 시베리아분원 부원장 등이 참가

● **러 상원의장, 北 6자회담 복귀 의사 미확인(11/28, 미국의소리 방송)**

- 러시아 연방의회의 세르게이 미로노프 상원의장은 방북기간 “북한이 과연 6자회담 복귀 의지가 있는 지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8일 보도
- 그는 그러나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등을 면담하고 “북한 핵문제는 협상과 다자회담의 틀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과 “러시아는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의 가입국이자 발의국으로서 북



한의 핵무기 개발과 실험을 방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소개

- 미로노프 의장은 또 이번 방북 때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의 친서를 북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고 VOA는 전언

● **러 상원의장, 北-러 협조, 동북아 안정 기여(11/25,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 북한을 방문 중인 러시아 연방의회의 세르게이 미로노프 상원 의장은 “두 나라 인민들의 긴밀한 협조는 조선반도(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보장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이 25일 보도
- 미로노프 의장은 2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연회에서 “러시아와 조선(북) 사이의 친선 관계는 깊은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다”면서 “두 나라 의회들 사이의 협력은 러조(북-러) 관계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면서 공동으로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에 대해 언급했다고 매체들은 전언
- 북한의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방문은 두 나라 의회들 사이의 관계뿐 아니라 조선과 러시아 사이의 전반적 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면서 “두 나라 최고위급에서 합의된 공동선언들과 새 국가간 조약의 정신에 기초하여 조러 관계가 가일층 공고 발전되리라는 것을 믿는다”고 강조
- 연회에는 북측에서 김완수 최고인민회의 부의장과 궁석용 외무성 부상,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홍서현 북.러친선의원단 위원장, 김성희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등이, 러시아측에서는 발레리 수히닌 주북 러시아 대사와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아태 담당 외무차관, 콘스탄틴 폴리코프스키 의장 고문, 루슬란 타타리노프 의장 서기국장, 안드레이 바클라노프 의회 국제연계국장 등이 참석

라. 기타국가 외교 관계

● **북한내 독일문화원 열람실 폐쇄(11/23, 쥐트도이체 차이퉁)**

- 2004년 북한에 개설됐던 ‘독일 과학기술 도서 보급실’(독일문화원 정보센터)이 최근 폐쇄됐다고 독일 일간지 쥐트도이체 차이퉁이 23일 보도
- 신문은 “독일 외무부도 참석한 괴테 인스티투트(독일문화원) 이사회가 2009년 여름 평양의 열람실 폐쇄를 결정한 데 이어 10월 북한의 조선-독일 친선협회와 맺은 ‘독일 과학기술 도서 보급실’ 운영에 관한 협약을 종료했다”면서 “미국이 독일에 폐쇄를 요구한 것 같다”고 밝힘.
- 신문은 “독일문화원이 폐쇄의 이유로 북한의 열람실 검열과 출입 통제를 들었지만, 이사들 누구도 지금까지 이런 사실을 문제삼지 않았



었다”면서 미국이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모든 차원에서 북한의 고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에 ‘우호적인’ 독일 외무부가 문화원에 폐쇄를 강요했다고 주장

- 2004년 6월 2일 평양 천리마문화회관에 개설된 이 도서보급실은 북한에 설치된 최초의 서방 문화관련 시설이자 개방의 ‘전진초소’로, 독일의 과학, 학술, 문화, 역사 서적, 신문, 영상자료 등이 전시돼 있었음.

3. 대남정세

● 南北, 12월 함께 中·베트남 공단 시찰(11/27, 조선일보)

- 남북이 개성공단 발전을 위해 12월 중순쯤 중국과 베트남의 공단을 공동 시찰,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다음 달 중순 약 10일 일정으로 중국과 베트남 공단을 대상으로 남북 합동 시찰을 실시하기로 최근 북측과 합의했다”며 “합동시찰단 규모는 남북 각 10명씩 구성될 예정”이라고 설명, 구체적인 일정과 참석자 명단 등은 추가 협의가 필요하며 이번 합의는 지난 6월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우리측이 제의한 내용을 이번 주 북측이 수용한 것임.

● 北, 진정성 있으면 당국회담 정식제의 해야(11/23, 연합뉴스)

- 통일부는 23일 북한이 최근 현대를 통해 개성·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당국 대화를 제의한 것과 관련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관광 재개를 희망한다면 지금 가동되고 있는 당국간 회담 채널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회담 제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
-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사업자(현대와 조선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사이에 협의된 내용에 대해 우리는 공식회담 제의로 보지 않는다”고 언급, 천 대변인은 이어 북한이 민간을 통해 대화를 제의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측에 대한 비난 등 여러 가지 다른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며 “정부로서는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그 의미나 의도를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밝힘.
- 그는 또 우리 쪽에서 먼저 회담을 제의하는 방안에 대해 “당국간 회담을 지금 시점에서 제의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금강산 관광 이외에도 남북간의 여러 현안들이 있는 만큼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가 북핵 문제와 연계된 것은 아니다”고 부연



- 정부, 개성공단 北근로자용 타미플루 확보(11/23, 연합)
 - 정부는 개성공단 내 북측 근로자에게 제공할 신종플루 치료제 타미플루를 1천명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개성공단 내 남측 근로자 대상 100명분, 북측 근로자 약 1천명분의 타미플루를 확보했다”며 “이는 북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절차를 거쳐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미·북 관계

● <고위당국자 “북·미대화 전망 어두워”>(11/29)

- 정부 고위당국자는 29일 다음달 8일 열리는 북·미 양자대화와 관련,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이라는 시그널이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전망이 어둡다고 봐야 한다”고 밝힘. 이 당국자는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북한의 입장에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함.
- 그는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시사했다는 언급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라며 “북한은 여전히 북·미 양국이 적대관계에서 평화관계로 바뀌어야만 6자회담 복귀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대화의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다”고 설명함. 그는 특히 최근 잭 프리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 일행의 방북결과와 관련, “북한의 입장이 달라진게 없는 것으로 들었다”며 “북한의 향후 행보가 긍정적이거나 기대해도 될 것 같은 조짐은 없었다”고 강조함.
- 그는 이어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루트와 관련, “인천공항으로 들어와 서울을 거쳐 오산에서 군용기를 이용해 평양에 들어갈 것”이라며 “평양에서 나올 때도 비슷한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현시점에서 보즈워스 대표가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거나 친서를 소지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내다봄. 이 당국자는 남북 대화재개 움직임과 관련, “지난 8월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의 서울 방문 이후 3개월만 봐도 남북간에 여러차례 접촉이 있었다”며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보다 뒤쳐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지만 객관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함.
- 이 당국자는 특히 “남북 해외공단 공동시찰 등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기 위해 실무적으로 움직여나가려는 기류가 있다”고 강조함. 그는 이어 금강산 관광을 둘러싼 유엔 안보리결의 위배 논란에 대해 “현재로서는 특별히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며 “(북한으로부터) 신변 안전보장과 재발방지 약속이 이뤄진다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봄.
- 그는 그러나 “(금강산 관광대가로) 현금이 유입되는 부분은 정치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이라며 “지금까지의 관광규모로 본다면 막대한 액수가 유입된다고 보기 어려워 종래 수준으로 재개되는데 문제가 없지만 가상적으로 액수가 막대하게 늘어난다면 그것은 생각해 봐야할 문제”라고 지적함. 이 당국자는 ‘그랜드바젠’(일괄타결) 방안



과 관련, “북한의 핵폐기와 보상조치간에 근본적인 시간차가 있고 이를 조정할 수 있다”며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려면 10년이 걸리지만 핵심적 비핵화만 따지면 수년안에도 가능하다”고 말함.

- 이 당국자는 북한에 요구하고 있는 비가역적 조치와 관련, “핵무기와 핵물질에 대해서는 해외 반출이 가장 유효한 조치”라며 “해외 반출과 함께 과학적으로 원자로 노심이나 재처리 시설의 핫셀(Hot Cell)에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를 검토 중”이라고 말함. 그는 일례로 “특수한 화학물질을 부과하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것을 옵션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함.

● “보즈워스, 오산서 군용기로 방북” <RFA> (11/28)

- 미국의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다음달 6일 서울에 도착한 뒤 8일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군용기를 이용해 방북할 것이라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8일 보도함. 이 방송은 지난 27일 ‘워싱턴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보즈워스 특별대표, 성 김 북핵 특사, 국무부와 국방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관리로 구성된 소규모 방북단이 6일 서울에 도착해 한국측 관리를 만난 뒤 8일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군용기를 타고 평양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힘.
- 오산 미 공군기지는 과거 미 행정부의 전·현직 관료들이 한국을 통해 방북할 경우 주로 사용한 루트로,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북 일정이 발표되면서 가장 유력한 루트로 점쳐짐. RFA는 “보즈워스 특별대표와 미국의 특사단이 군용기를 타고 방북하는 것은 이번 북·미 간 만남이 ‘협상’이 아닌 ‘접촉’의 성격이 강하고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설득하고자 하기 때문에 미국 측이 언제든지 북·미 대화를 마치고 평양을 떠나 필요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는 뜻으로 보인다”고 해석함.
- 방송은 이어 보즈워스 일행이 서울에 도착하는 다음달인 7일 한국 정부와 방북에 관한 사전협의를 하고 방북을 마친 뒤에도 다시 서울로 와 한국 정부에 방북 내용을 보고·논의하고 일본과 중국, 러시아를 차례로 방문해 방북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이와 관련, 외교부 관계자는 “보즈워스 대표가 8일 북한에 들어간다는 것 말고는 아직 구체적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공식적인 일정이 통보된 게 없다”고 밝힘. 그는 “다만 보즈워스 대표가 한국을 통해 8일 북에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늦어도 7일, 이르면 5일이나 6일 정도에 한국에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정도”라고 말함.
- 그는 방북전인 7일 한국 관리와 만난다는 보도와 대해서도 “오는 날짜를 통보받지 못했는데 면담 일정이 잡혀있겠나”라면서 “단지 가능성에 대비해 당국자 일정을 비워 두는 정도”라고 덧붙였다.



● 프리처드, 韓.보즈워스에 ‘방북브리핑’(11/25)

- 북한을 다녀온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을 비롯한 미국 북한 전문가 일행이 스티븐 보즈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에게 방북 결과를 직접 설명할 것으로 알려짐. 특히 프리처드 일행은 24일 한국을 방문, 서울에서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황준국 북핵외교기획단장과 만찬을 함께 하며 방북 결과에 대해 브리핑한 뒤 25일 오전 귀국길에 올랐음.
- 북핵 현안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프리처드 소장 일행이 미국으로 돌아가 보즈워스 특별대표에게 방북 결과를 브리핑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한이 내달 8일 방북하는 보즈워스 대표와 어떤 내용의 논의를 원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함. 다른 소식통은 “프리처드 소장 일행이 워싱턴으로 돌아가서 북한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에 대해 보즈워스 대표와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
- 프리처드 소장은 앞서 24일 방북을 마치고 베이징(北京) 서우두(首都) 공항에 도착해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에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며 “북한에 전달할 미국 정부의 공식 메시지도 없었고 북측으로부터 미국 정부에 전달해 달라는 메시지도 받지 못했다”고 말함.
- 프리처드 소장 and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소장, 니콜 피네만 KEI 학술연구부장 등 3명의 미국 방북단은 연구용역 차원에서 21~24일 북한을 방문, 북·미관계 및 핵과 관련한 북한 당국자들 면담한 것으로 알려짐. 미 방북단 중 프리처드 소장 and 스나이더 소장은 미국외교협회(CFR)가 내년 초 발표할 미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관한 보고서 작성 작업을 진행 중인 ‘한반도정책 태스크포스(TF)’에도 참여하고 있음.

● “한성렬, 27일부터 UN 北대표부 근무”<VOA>(11/26)

-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에 새로 부임하는 한성렬 차석대사가 27일(미국시간)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6일 전함. 이 방송은 ‘북한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을 인용, “지난 10일 뉴욕에 도착한 한성렬 차석대사가 전임자인 김명길 공사와 업무 인수인계를 모두 마쳤다”며 이같이 밝힘.
- 한 신임 차석대사는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근무 시절 6자회담에 관여하며 북·미간 채널 역할을 함. 한 차석대사는 바이든 부통령을 비롯해 미국 민주당 안에 상당한 인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특히 바이든 부통령은 미 정부의 대북 압박 정책이 고조되던 2004년 당시 상원의원으로서 한성렬의 워싱턴 방문을 위해 공화당 정부를 앞장서 설득했던 인연을 갖고 있음.
- 뉴욕 주재 북한대표부에 나와 있는 북한 외교관들은 미국 내 거주지에서 반경 25마일 이내로 여행을 제한받고 있음.



● “UNDP, 내년 1월 대북사업 재개” <RFA>(11/24)

- 유엔개발계획(UNDP)이 내년 1월 평양사무소를 다시 열고 대북사업을 재개한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4일 전함. 이 방송은 UNDP의 ‘대북사업보고서’를 인용, “농경 에너지 지원, 농업, 생필품 공급, 통계자료 수집, 인적자원 개발 등 미화 250만 달러(약 29억원) 규모의 6개 대북지원 사업을 내년 초 재개한다”며 “이미 프랑스인인 제모리 사우비지 씨가 평양사무소 대표로 임명됐고 총 18명의 직원이 근무할 예정”이라고 밝힘.
- RFA는 이어 “이달 2일 평양사무소 대표로 임명된 사우비지 대표가 평양으로 가 대표직 수행을 위한 국가 허가증 취득 과정을 북한 외무성을 통해 12일 완료했다”며 “사우비지 대표가 유엔 아동기금(UNICEF),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계획(WFP) 등 북한 주재 유엔기구를 대표하는 조정사무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함.
- UNDP 평양사무소에는 국제직원 5명과 북한 현지인 13명이 근무할 예정인데, 평양사무소의 보수공사가 완료돼 장비와 연락체계 준비만 끝나면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방송은 전함. RFA는 또 “과거의 자금 전용 의혹을 의식해 이번 대북사업은 다른 유엔 기관보다 더 정밀한 감독과 감사를 거칠 것”이라며 “예전과 달리 전반적인 사업이 뉴욕본부의 계획과 통제 아래 추진될 예정”이라고 설명함.
- UNDP는 1981년부터 북한에서 농경지 복구, 인적자원 개발, 경제개혁 지원 등의 다양한 대북 사업을 벌였으나 2007년 1월 북한이 자금을 전용했다는 미국측의 의혹이 제기되자 그해 3월 사업을 중단함. UNDP는 올해 1월 정례회의를 열어 2년 가까이 중단돼 온 대북사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함.

나. 중·북 관계

● 北인민군 협주단, 中베이징서 공연(11/29)

- 북한 인민군 협주단이 27일 중국 베이징 중국극원에서 초청공연을 가졌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전했다. 이번 공연은 김정각 북한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의 방중과 량광례(梁光烈) 중국 국방부장의 방북 및 김정일 위원장 면담 등 북·중 양국간 군사부문 교류가 활발히 전개되는 가운데 이뤄진 것임.
- 군 협주단은 ‘조선인민군가’, ‘중국인민해방군 군가’를 시작으로 혼성 합창 ‘언제나 수령님을 우러러’, 남성4중창 ‘선군의 나의 조국아’ 등을 공연했으며 ‘3대규율 8항주의’ 등 중국노래도 선을 보였음.
- 중국의 쉬차이허우(徐才厚)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은 공연 관람에 앞서 북한군 협주단 간부들과 면담을 갖고 “두 나라 영도자들의 깊은 관심 속에 중·조(북) 군대들 사이의 관계가 좋게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중앙통신이 소개했음.
- 쉬 부주석은 “중국 당과 정부, 군대는 노세대 영도자들께서 마련해



주신 중·조 친선을 귀중히 여기고 조선 동지들과 함께 두 나라, 두 군대들 사이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中国방부장 귀환..김정일 위원장 면담(11/26)

- 북한을 방문한 량광례(梁光烈) 중국 국방부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 등 일정을 모두 마치고 26일 귀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중앙통신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인 상장 량광례가 26일 비행기로 귀국했다”며 “중국 국방부장과 일행은 조선방문 기간 만경대를 방문하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참관했다”고 밝힘.
- 앞서 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언론매체들은 별도의 보도를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방북한 량광례 국방부장을 면담했다고 전함. 이들 매체는 “김정일 동지께서 25일 조선을 방문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인 상장 량광례와 그의 일행을 접견했다”고 말함.
-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는 가운데 지난달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방북을 계기로 북중 관계가 전례없이 가까워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중국 국방부장이 북한을 방문한 것은 2000년 이후 이번까지 모두 세 차례인데, 김 위원장은 2000년 10월 방북한 츠하오텐(遲浩田) 국방부장은 면담했지만, 2006년 차오강촨(曹剛川) 국방부장은 만나지 않았음. 북한 매체들은 또 “(량광례) 중국 국방부장이 김정일 동지께 보내온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자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후진타오 동지의 인사를 정중히 전해드렸다”며 “김정일 동지는 이에 사의를 표하시고 후진타오 동지에게 인사를 전하신 다음 량광례와 따뜻하고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담화했다”고 소개함.
- 이 자리에는 북측에서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등이, 중국측에서는 류샤오밍(劉曉明) 주북 중국대사가 배석함. 북한의 대미 핵협상을 총괄하는 강 제1부상이 면담에 배석한 것과 관련, 내달 8일로 예정된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을 앞두고 향후 북·미 대화와 6자회담 대응 등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옴.

● 北·中, 나진항 ‘국제 물류기지’ 합작개발(11/25)

- 북한과 중국이 나진항을 중계무역과 보세, 수출가공이 가능한 국제 물류기지로 합작 개발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이는 중국이 나진항 확보에 공을 들였던 이유가 두만강 유역의 동해 진출만 노린 것이 아니라 북한과의 폭넓은 경제 협력을 통해 동북아시아권의 물류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임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됨.
- 중국 지린성의 한 소식통은 25일 “지린(吉林)성 발전연구센터 류시밍(劉庶明) 거시경제처장이 최근 공식 석상에서 나진항을 중계무역과



수출 가공, 보세 물류 등 국제 교역 단지로 합작 개발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전함. 류 처장은 이 자리에서 “나진항을 단순한 동해 진출 항구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다”며 “나진항 중계무역 기지 개발 프로젝트는 이미 북한은 물론 중국 중앙정부의 승인이 난 것”이라고 설명함.

- 그는 이어 “이미 세계화상(華商)연합회와 미국의 모 그룹이 나진항 개발과 관련, 지린성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며 “투자 규모는 30억 위안(5천억 원)”이라고 전함. 류 처장은 “나진항을 중계무역 기지로 개조하기 위해 중국 접경지역인 북한의 원정에서 나진까지 폭 9m의 4차로 도로를 개설하고 나진항 기존 부두의 보수·확장과 4번 부두 신축에 양측이 합의했다”며 “나진항이 수출 가공과 보세, 중계 무역 기능을 갖춘 국제적 물류단지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함.
- 나진항 개발을 위한 자금은 외자 유치를 포함, 중국 측이 조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북·중 양측은 나진항을 통과하는 중국의 선박과 인원에 대한 출입국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한다는 데도 합의함.
- 이에 앞서 한창푸(韓長賦) 지린성장이 지난달 26-27일 두만강 유역 개발 프로젝트인 ‘창지투(長吉圖) 개방 선도구’ 사업의 국무원 승인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함경북도와 나진선봉시를 방문, 창지투 개방 선도구 사업 계획에 나진항 합작 개발 계획을 포함하려고 북한과 조율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음. 지린성 관계자는 당시 “한성장이 나진항 공동 개발에 대해 북한과 논의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음.
- 북한이 지난해 3월 남포항에 중국 업체의 보세가공 업체 설립을 허용한 데 이어 나진항을 중계무역 기지로 개발키로 하면서 본격적인 대외개방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음. 연변대 윤승현 교수는 “지린성 관계자가 나진항 합작 개발에 대해 공식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국무원이 승인한 창지투 개방 선도구 사업에 북한과의 합작이 포함됐음을 의미한다”며 “창지투 개발이 국무원 승인을 얻은 만큼 나진항 합작 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함.

● “中-北, 6자회담 정체에도 군사협력 확대”(11/24)

- 북한의 6자회담 이탈 및 2차 핵실험 등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4일 전함. 중국의 이런 움직임은 북한 지하자원 등을 겨냥한 경제면뿐 아니라 군사면에서도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한반도의 안정으로 이어지면서 중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신문은 분석함.
- 신문에 따르면 량광례(梁光烈)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이 지난 22일 5박6일 일정으로 북한을 공식 방문하고 있음. 량 부장은 북한 측과의 회담에서 북·중 접경지대의 경비 문제와 중국의 국산 신형 경전투기 JF17의 수출 문제 등도 협의할 것으로 보임.



- 신문은 이렇게 전하면서 최근 북·중간 관계도 간략히 정리함. 즉 중국은 앞서 북한이 지난 5월 2차 핵실험을 한 뒤 이에 대한 불쾌감을 표시하기 위해 6월초 예정했던 천즈리(陳至立)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부위원장의 방북을 취소하면서 북·중 관계가 표면적으로는 냉각된 것처럼 보였지만 김영춘 북한 인민무력부장이 이후 질병 치료를 위해 중국을 찾는 등 양국 고위급의 긴밀한 왕래는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임.
- 특히 중국측은 대북 제재 강화가 북한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하게 되는 점을 우려해 수위를 조절해왔음. 이런 가운데 지난 10월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 이후 양국 간 중요 인사들의 왕래도 활발해짐. 같은 달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최태복 당서기가 잇달아 중국을 방문함.
- 중국측은 2억위안(약 337억원) 규모의 경제원조 이외에도 압록강에 새 다리를 건설하고 풍력발전소 건설 비용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도 밝히는 등 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요미우리는 북·중 관계 소식통의 말을 인용, “연기됐던 천즈리 부위원장의 방북도 12월 초순에 실현 될 것으로 보이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내년 초 방중 가능성도 중국 내에서 주요 관심사”라고 지적함.
- ◇다음은 최근 북·중 주요 인사 방문 내역. ▲2005년 10월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방북, 김정일 위원장과 회담; ▲2006년 1월 = 김 위원장 방중, 후진타오 주석과 회담; ▲2007년 7월 =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부장 방북, 김 위원장과 회담; ▲2008년 1월 = 중국공산당 왕자루이(王家瑞) 대외연락부장 방북, 김 위원장과 회담; ▲2008년 6월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 방북, 김 위원장과 회담; ▲2009년 3월 = 김영일 북한 총리 방중, 원자바오 총리와 회담; ▲2009년 6월 = 김영춘 북한 인민무력부장 극비 방중; ▲2009년 9월 = 다이빙귀(戴秉國) 중국 국무위원 방북, 김 위원장과 회담; ▲2009년 10월 = 원자바오 총리 방북, 김 위원장과 회담; ▲2009년 11월 = 량광례 중국 국방부장 방북.

다. 일·북 관계

○ “김정일, 4월 지방 방문때 김정은 동행”(11/29)

-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4월 원산지역을 방문했을 때 후계자로 거명되는 3남 김정은이 수행한 사실이 문서로 밝혀졌다고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이 29일 베이징발로 보도함. 마이니치신문은 김정일의 지방지도에 김정은이 수행한 것이 문서로 드러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이는 김정은의 후계 작업을 위해 활동기록의 보존이 시작된 것이라고 분석함.
- 이 신문이 입수한 북한 내부 문서에는 ‘김정은 대장동지에 관해 발표된 최초 공개문서’라고 명기돼 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4월 26일 원산농업대학을 방문했을 때 작성됐다고 신문은 전함. 이 문서에 명기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발언에는 “오늘 김 대장(김정은)과 함께 이곳에 왔다. 원산농업대학은 수령님(김일성)과 김정숙 어머니, 나와 김 대장에게 영광의 대학이다”라고 돼 있어 김정은의 존재를 명백히 함.

- 당시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와 장성택 당 행정부장, 박남기 당 중앙위 부장 등과 함께 원산농업대학을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으나 김정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음. 마이니치신문은 베이징의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원산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문서는 당시 노동당 선전선동부의 실무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라. 기타

● 러 상원의장 “北 6자회담 복귀 의사 미확인”(11/28)

- 최근 북한을 방문했던 러시아 연방의회의 세르게이 미로노프 상원의장은 방북기간 “북한이 과연 6자회담 복귀 의지가 있는 지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8일 보도함. VOA에 따르면 지난 25일 1박2일의 방북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미로노프 상원의장은 26일 러시아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현재로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준비가 돼 있는지 말하기 어렵다”며 “이와 관련해 북측으로부터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말함.
- 그는 그러나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등을 면담하고 “북한 핵문제는 협상과 다자회담의 틀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과 “러시아는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의 가입국이자 발의국으로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실험을 방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 미로노프 의장은 또 이번 방북 때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의 친서를 북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 언론은 미로노프 의장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 김정일 위원장에게 주는 선물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으나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친서 전달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미로노프 의장은 2004년 9월 방북했을 때에는 김정일 위원장을 예방, 블라디미르 푸틴 당시 러시아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자신이 준비한 선물도 줬음.

● 국제의원연, 北 정치범 수용소 해체 촉구(11/28)

-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은 28일 태국 치앙마이 머큐어호텔에서 제6차 정기 총회를 열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해체 등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함. 국제의원연맹은 이



날 채택한 공동선언문에서 “북한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해 노력과 성의를 다할 것을 요청한다”며 “북한 정부가 북한 주민에게 더이상 비인간적 차별이나 폭력을 가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힘.

- 선언문은 또 “북한은 반인도적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며 “전 세계의 모든 민주주의 국가와 의회는 유엔과 협력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해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함. 아울러 국제의원연맹은 중국이 탈북자 체포와 강제송환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 강제송환된 탈북자에 대한 북한의 고문과 구금, 공개처형 중단 ▲ 강제 납북자에 대한 생사 확인과 즉각적인 송환 ▲ 6자 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룰 것 등을 촉구함.
- 황우여(한나라당) 상임공동대표는 “탈북자들의 주요 경유지인 태국에서 각국 의원들이 탈북자 문제를 공론화하고 협력할 것을 선언한 만큼 이번 회의는 탈북자 인권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함.

● 러 상원의장 “北-러 협조, 동북아 안정 기여”(11/25)

- 북한을 방문 중인 러시아 연방의회의 세르게이 미로노프 상원 의장은 “두 나라 인민들의 긴밀한 협조는 조선반도(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보장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이 25일 보도함. 미로노프 의장은 2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연회에서 “러시아와 조선(북) 사이의 친선 관계는 깊은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함.
- 그는 또 “두 나라 의회들 사이의 협력은 러조(북-러) 관계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면서 공동으로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에 대해 언급했다고 매체들은 전함. 북한의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방문은 두 나라 의회들 사이의 관계뿐 아니라 조선과 러시아 사이의 전반적 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면서 “두 나라 최고위급에서 합의된 공동선언들과 새 국가간 조약의 정신에 기초하여 조러 관계가 가일층 공고 발전되리라 믿는다”고 강조함.
- 이 연회에는 북측에서 김원수 최고인민회의 부의장과 궁석용 외무성 부상,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홍서현 북·러친선의원단 위원장, 김성희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등이, 러시아측에서는 발레리 수히닌 주북 러시아 대사와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아태 담당 외무차관, 콘스탄틴 폴리코프스키 의장 고문, 루슬란 타타리노프 의장 서기국장, 안드레이 바클라노프 의회 국제연계국장 등이 참석함.

● 北 “FAO, 식량위기 대처 국제환경 마련해야”(11/25)

- 북한은 지난 20일 열린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총회 제36차 회의에서 “FAO가 무엇보다도 식량위기, 금융경제위기에 대처하여 지속



적인 농업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는 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북한의 언론매체들이 25일 보도함.

- 북한의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이 회의에 참석한 북한 대표단 단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 정부는 자주, 평화, 친선의 이념에 따라 앞으로도 유엔 농업식량기구와 모든 성원국들과 친선협조 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킬 것이며 세계 식량안전 보장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도 적극 기여할 것"이라며 이같이 촉구함.
- 이 단장은 또 "발전도상 나라들의 농업 발전을 위한 활동계획들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면서 "성원국들에서 자체의 실정에 맞게 농업 전략과 정책을 세우고 농업 생산력을 더욱 높이기 위한 사회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는 데 응당한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이라고 FAO에 주문함. 이 단장은 이어 "농업 발전과 농촌 개발에 대한 정부적 투자를 늘리기 위한 활동들에 힘을 넣는 한편 발전도상 나라들에서 농업 증산에 필요한 과학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말함. 이 회의는 18~23일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FAO 본부에서 열림.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난으로 국제 사회의 지원을 받고 있음.

● 北-러, 국회의장 회담 가져(11/24)

- 북한의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2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이날 방북한 러시아 연방의회의 세르게이 미로노프 상원 의장과 회담을 가졌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이 통신은 "회담에서 쌍방은 조(북)-러 두 나라 의회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킨다는데 대해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일련의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회담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음.
- 이날 회담에 북측에서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홍서현 북·러친선의원단 위원과 김성희 대의원이, 러시아측에서는 발레리 수히닌 주북 러시아 대사와 미로노프 의장을 수행중인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아태 담당 외무차관, 콘스탄틴 폴리코프스키 의장 고문, 루슬란 타타리노프 의장 서기국장, 안드레이 바클라노프 의회 국제연계국장 등이 참석함.
- 미로노프 의장은 또 김영일 북한 내각 총리와도 만났는데 이 자리에는 북측에서 리룡남 무역상과 최배진 국가계획위원장이 배석함. 앞서 중앙통신은 미로노프 의장이 항공편으로 방북했으며 공항에서 북한 최고인민회의 김완수 부의장의 영접을 받았다고 전함.
- 미로노프 의장은 평양 방문에 앞서 "(북·러) 양국 사이의 접촉을 강화하고 쌍방 관계의 포괄적인 문제와 세계안전 문제에 대한 회담 진행이 필요하다"며 "북·러 관계 발전에서 의회간 외교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서울에서 수신된 '러시아의 소리' 방송이 21일 보도함.



- 그는 2004년에도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당시 러시아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함.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블레어 美국가정보국장 22~24일 방한(11/27)

- 데니스 블레어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동북아 순방의 일환으로 최근 방한해 정부 안보관계부처 고위인사들을 두루 만나 한국의 아프가니스탄 파병과 북핵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알려짐.
- 정부 관계자는 27일 “블레어 국장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방한해 23일 시내 모처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만났다”면서 “이번 방한은 아시아 순방 등 정기적인 차원인 것으로 안다”고 말함.
- 블레어 국장은 유 장관 외에도 김태영 국방장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등과도 만난 것으로 알려짐. 그는 특히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와 관련, 최근의 아프간 전황과 국내상황, 미국의 아프간전 증파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의 아프간 파병 규모와 시기 등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짐.
- 이와 관련,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블레어 국장은 한국에 이어 중국과 일본 등도 방문한 것으로 안다”면서 “아시아 국가 순방 차원에서 방문한 것이어서 아프간 파병 문제 등에 대한 깊숙한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함. 블레어 국장은 중앙정보국(CIA)과 연방수사국(FBI), 국가안전보장국(NSA), 국방정보국(DIA), 국가정찰처(NRO) 등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미 정보당국의 총책임자임.
- 한편 정부는 26일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최근 아프간을 다녀온 정부합동 현지실사단의 보고를 토대로 아프간 지방재건팀(PRT) 인원과 군·경 보호병력 규모 등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짐. 이와 관련 정부 고위 소식통은 PRT는 130명 내외, 이를 보호할 병력은 300~400명 사이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함.

나. 미·일 관계

● “美, 환태평양 FTA에 日 참여 요청”(11/27)

- 미국이 환태평양 자유무역협정(FTA)에 일본의 참여를 요청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7일 보도함. 이는 미국이 주도하는 FTA에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를 포함함으로써 아시아지역의 무역판도 재편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분석함.
- 미국 통상대표부(USTR)의 론 커크 대표는 지난 11일 싱가포르에서 나오시마 마사유키(直嶋正行) 경제산업상을 만난 자리에서 일본의



환태평양 FTA 참여를 타진함. 당시 나오시마 경제산업상은 당장 참여는 어렵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짐. 농업분야를 포함한 환태평양 FTA에 참여할 경우 농업계의 반발이 불가피하기 때문임.

- 환태평양 FTA는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파트너십(TPP)’으로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브루나이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4일 도쿄 강연에서 참여의사를 표명함. 환태평양 FTA에는 오스트레일리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도 잇따라 참여 의사를 밝힘.
- 중국은 현재 아시아 지역의 통상 교섭에서 아세안(ASEAN) 10개국에 한·중·일을 포함한 ‘아세안+3’ 광역 FTA를 제창하고 있음. 따라서 미국은 경제 규모가 큰 일본을 환태평양 FTA에 끌어들이므로써 이 지역에서 무역 주도권을 추구하고 있는 중국에 대응하는 한편 동아시아공동체를 주창하고 있는 일본도 견제하자는 포석으로 풀이됨.

다. 중·일 관계

● 中·日 첫 합동군사훈련 실시키로(11/28)

- 중국과 일본이 사상 처음으로 합동 군사훈련을 하기로 하는 등 국방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량광례(梁光烈) 중국 국방부장은 27일 일본을 방문해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일본 국방상과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사상 처음으로 양국이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키로 하는 등 9개항의 협력방안에 합의했다고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가 28일 보도함.
- 양국 국방장관은 공동성명에서 향후 중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해상에서 수색 및 구조 공동훈련을 실시하고 유엔 평화유지활동 등의 영역에서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함. 과거 일본의 중국 대륙 침략 등에 따른 역사적 앙금이 남아 있는 양국 군이 합동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 두 나라는 또 지속적인 방위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높이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군 고위층의 상호방문, 차관급 협의 정례화, 군함의 상호 방문 등에도 합의함. 구체적으로는 기타자와 방위상이 량광례 부장의 일본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내년에 중국을 방문하기로 했고 일본 육상자위대 막료장(참모총장)도 내년에 중국을 찾기로 함.
- 또 양국은 2010년부터 인민해방군과 일본 육상자위대 간의 전면적인 교류를 시작하기로 했으며 조속한 시기에 양국 간 해상 연락시스템(핫라인)을 가동해 나가기로 함. 한편 일본 언론들은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가 중국에 군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28일 보도함.
- 하토야마 총리는 27일 일본을 방문한 량광례 부장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의 국방비와 관련 “해마다 두 자리씩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고 지적하고 “중전보다 더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함.

라. 기타

● 제3차 한-중앙아 협력포럼 내달 2일 개최(11/29)

-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5개국의 정부 관료와 기업인, 학생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실크로드’ 개척을 모색함.
- 외교통상부와 지식경제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다음달 2일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3차 한-중앙아시아 협력포럼을 공동개최함. 한-중앙아 협력포럼은 2007년 11월 출범 이래 중앙아 국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으로 명실상부한 한국과 중앙아 5개국간 정례 협의체로 정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이번 포럼에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5개국의 외교차관급 인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 50여명과 기업인, 학생 등 국내외 인사 400여 명이 참가해 에너지·자원뿐만 아니라 산업, 교육,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함.
- 이를 위해 포럼은 국가경제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 동력 창출, 에너지 사용 효율화, 국가 인적자원 육성, 국민건강 증진 및 보건의료분야 협력 등 4개 세션으로 나눠 주제발표와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 특히 한국에서 수학 중인 중앙아 5개국 학생들과 러시아·중앙아를 전공하는 국내 대학 및 대학원생들도 참석,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과 민간 차원의 상호 이해 및 신뢰 증진을 위한 유용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 “하토야마 위장 정치현금 3억5천만엔”(11/29)

-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의 정치자금 관리단체가 현금(기부)으로 위장한 혐의가 있는 정치자금은 모두 3억5천만엔이라고 아사히신문이 29일 보도함. 이 신문에 따르면 하토야마 총리의 정치자금관리단체인 우애정경간화회(友愛政經懇話會)가 하토야마 총리와 가족(모친)의 자산관리회사인 육행상회(六幸商會)로부터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받은 정치자금은 모두 11억5천만엔이었음.
- 이 가운데 2억엔은 사망자나 현금을 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을 도용해 현금을 한 것으로 기재됐으며, 1억5천만엔은 정치자금 모금액으로 부풀려지는 등 모두 3억5천만엔이 위장 정치자금으로 추정됐음.
- 또 하토야마 총리의 정치자금 11억5천만엔 가운데 9억엔은 모친으로부터 대여한 자금, 2억엔은 본인의 자금인 것으로 나타남.



- 도쿄지검 특수부는 정치현금의 위장기재를 주도한 전 공설제1비서를 수사한데 이어 정책비서도 참고인으로 조사했으며, 하토야마 총리의 모친에 대해서도 참고인 형식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임.
- 하토야마 총리 측은 모친으로부터 받은 정치자금을 ‘대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차입과 원리금 상환을 입증하는 서류 근거가 없어 ‘증여’ 논란이 일고 있음. 산케이신문은 하토야마 총리가 모친으로부터 대여한 자금이 검찰수사 결과 ‘증여’로 판명될 경우 약 4억엔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보도함.

● <대통령대화> 아프간파병 “국제적 의무”(11/28)

-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우리 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과 관련해 이른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강조하고 나섬. 우리 군의 아프간 파병을 사회 지도층의 사회적 책임을 의미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빗대 설명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이제는 경제적인 원조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국제적인 의무를 다해야 함을 지적한 것임.
- 이 대통령은 이날 밤 ‘특별생방송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개인이나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고, 관계 없는 사람도 도와야 하는 소위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있다”며 “바로 사회적 책임”이라고 말함.
- 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나라가 1971년까지 국제사회로부터 무상원조를 받았고 6.25전쟁 때 에티오피아 등 우리와 관계없는 국가들이 파병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우리는) 2차대전 이후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주는 유일한 나라가 됐고, 국제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함. 지금까지는 우리의 국제적인 의무가 빈국에 대한 경제 원조에 한정됐다면 이제는 선진 공여국으로의 위상 변화를 전세계에 알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해 국격(國格)이 선진국 수준에 이른 만큼 군사적인 역할을 더는 외면해선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됨.
- 특히 분쟁지역에 대한 평화유지와 테러 문제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절실한 가운데 선진국의 문턱에 다다른 한국이 이에 적극 동참할 경우 경제·외교적으로도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고려한 것으로 보임. 이 대통령은 “우리는 모든 나라에 물건을 팔고 있고 (그래서) 나라 경제가 되고 있다”며 “우리도 테러문제와 평화를 유지하는 일에 참여해야 하며, 그것이 국제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말함.
- 다만 이 대통령은 이번 파병이 아프간의 재건을 위한 지방재건팀(PRT)이란 본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함. 이 대통령은 “아프간이 위험하다고 하니 1차적으로 그곳에 (PRT) 150명이 가서 의료시설도 만들고 농사짓는 법과 직업훈련 등 평화적 사업을 후방에서 하는 것”이라고 전제, “싸우는 전투병이 가는 게 아니라 (PRT) 150명을 지키려고 300명이 가는 것”이라며 “안전한 지역에



서도 사고가 나지만 가능하면 생명에 대한 위협이 없는 곳에서 전투하지 않고 하려 한다”고 설명함.

- 그러면서 이라크에 파병됐던 자이툰 부대의 성공담을 예로 적시함. 이 대통령은 “이라크에서도 인명피해 없이 봉사를 통해 좋은 평가를 들었고, 국제적인 의무를 함으로써 국제적인 지위를 향상했다”며 이것이 바로 “국제적인 의무”라고 거듭 강조함.

● 한·이집트, 신재생에너지 협력 강화(11/27)

- 한국과 이집트는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도림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제6차 정책협의회를 열고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27일 밝힘. 양국은 또 원자력·방산·관광 등 제반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함.
- 양국은 1995년 양국 수교 이후 활발하게 진행된 고위인사교류와 교역 및 투자 등 경제협력을 평가하고 수교 15주년을 맞는 내년에 다양한 문화 행사들을 개최함으로써 양국 국민간 상호인식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함. 두 나라는 정책협의회에 이어 오찬 협의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협상, 아프가니스탄 문제 등 중동 정세와 한반도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는 덧붙였음.
-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의 기업이 이집트 사막의 부지와 하수처리수를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자트로파라는 식물을 재배하는 사업 계획에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졌다”며 “이는 정부가 중점을 두는 녹색성장 사업의 일환”이라고 말함. 이번 정책협의회에는 이용준 외교부 차관보와 아흐메드 파탈라 이집트 외교부 아시아담당 차관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함. 제5차 정책협의회는 지난 2월 서울에서 열림.

● <中, 가스감축목표 제시..의미와 전망>(11/26)

- 중국이 26일 파격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발표한 것은 대외적으로 기후변화 등 국제문제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과시하고 대내적으로는 친환경 산업구조로 재편하겠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됨. 중국은 이날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주재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단위 기준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0~45% 감축하겠다고 발표함.
- 중국은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전체 배출량의 약 21%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중국에 이어 세계 두번째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은 아직 의회에서 법안이 계류중이지만 공식적으로 목표치를 발표하지 않고 있음.
- 이런 가운데 중국이 내달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정상회의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목표치를 발표한 것은 국력에 걸맞은 책임 있는 국가로서 역할을 하려는 포석으로 분석됨. 중국은 그동안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책임이 큰 선진국이 우선 모범을 보여야 하며 개발도상국은 능력과 실제 문제를 야기한 정도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었음.

- 중국은 2006년 11차 5개년 계획(11.5계획)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20% 줄이겠다는 목표치는 제시했지만 이날 발표된 내용은 당시의 두 배가 넘는 40~45%에 육박하는 것임. 이번 조치는 미국을 압박하면서 앞으로 일본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에도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 우리처럼 모범을 보이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평가됨.
- 한·중 환경산업센터의 측정사 주임은 “미국은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으면서 중국 등 개도국에 화살을 돌렸는데 이번 조치는 중국이 미국 측에 던지는 압박의 의미가 있다”고 말함. 이번 발표가 갖는 대내적인 의미도 적지 않음.
- 중국이 발표한 목표치 40~45%는 국내총생산(GDP) 단위 기준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2020년까지 에너지 생산 구조를 친환경적으로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는 의미를 지님. 예를 들어 2005년 기준으로 GDP 1단위를 생산하는데 ‘100’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됐다면 2020년에는 1을 생산하는데 55~60의 이산화탄소만 배출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임.
- 다만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고려하면 실제 온실가스 배출규모의 절대량이 줄어들 지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려움. 한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감축 목표치 4%는 절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의미라는 점에서 중국의 발표치와는 차이가 남.
- 이번 발표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집권 2기를 맞고 있는 중국의 산업 구조도 크게 재편될 것으로 전망됨. 후 주석은 2007년 10월 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발표한 정치보고서에서 과학적 발전관과 맥을 같이하는 생태문명의 건설과 에너지절약형·생태환경보호형 산업구조, 성장방식, 소비구조의 형성 등을 천명함. 그러나 금융위기를 맞아 선투자가 필요한 환경 산업보다는 경제 회복을 우선순위에 두면서 환경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약간 밀려나는 분위기였음.
- 중국 정부가 이번에 산업을 친환경 녹색산업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함에 따라 향후 산업 구조의 재편 속도도 빨라지게 될 것으로 보임. 안연순 주중대사관 환경관은 “이번 발표는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면서 “중국이 앞으로는 산업구조를 친환경적으로 재편해 녹색, 생태환경 사회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힘으로써 국내적으로 관련 산업이 크게 유망해질 것”이라고 말함.

● 정부 “OECD, 한국 DAC 가입결정 환영”(11/26)

- 정부는 26일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 것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힘.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OECD가 25일 개최된 개발원조위원회 가입심사에서 한국을 24번째 신규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할 것을 환영한다”고 말함.

- 논평은 “정부는 이를 계기로 2015년까지 우리의 ODA(공적개발원조)를 국민순소득(GNI) 대비 0.25% 수준까지 확대키로 한 공약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원조방식도 통합적·효과적으로 개선, 개도국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선진화할 계획”이라고 밝힘. 논평은 또 “우리나라는 개발원조위원회 가입을 통해 신흥공여국 지위에서 벗어나 선진공여국으로 활동하게 됐다”며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의지를 재확인함으로써 한국의 국격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함.
- OECD는 지난 25일 프랑스 파리에서 DAC 특별회의를 열어 한국의 원조정책에 대한 사무국의 현지실사 결과를 보고받고 회원국과 우리 대표단의 질의응답과 회원국 간 비공개 토의를 거쳐 한국의 DAC 가입을 공식 의결함.

● 美-印 경제전략대화 구상..중견제 포석(11/25)

- 미국과 인도가 상호 전략적 파트너 관계 및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매년 각료급 회담을 열기로 함. 이를 위해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이 내년초 인도를 방문한다고 백악관이 24일 밝힘. 미국과 인도의 새로운 경제협력 관계 조성은 미국이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이래 경제 협력을 위해 중국과 연간 두번 개최해온 미·중 경제전략대화에 비견되는 것이어서 주목됨.
- 양국은 각료급 수준에서 구체적 경제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해 매년 미국과 인도를 번갈아가며 만나 대화를 나눌 예정임. 이 모임을 통해 경제협력 이외에 안보부문 등 포괄적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 방안도 모색한다는 방침임.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만모한 싱 인도 총리를 첫 국빈으로 초청한 자리에서 인도는 미국의 성장 실현을 이끌어줄 필수불가결한 파트너라고 강조하며 “인도는 우리가 처한 주요한 도전에 맞서는데 있어 결정적 역할을 것이며, 양국간 협력은 우리의 일자리 창출 목표와도 부합한다”고 말함.
- 가이트너 재무장관도 성명을 통해 “인도는 신흥 강국이며, 그간 미국은 인도와 경제 및 금융관계에서 상호의존을 심화시켜왔다”고 강조함. 미국은 지난 9월까지 1년간 인도와의 교역에서 32억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중국과의 무역적자 1천658억달러에 비해서는 적은 것임.
- 싱 총리는 “미국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인도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화해주다면 거대한 연구·개발 성과를 내는데 큰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며 “이로 인해 미국 또한 인도에서 이뤄지고 있는 급속한 발전상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함.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아시아의 안정과 평화, 번영을 위해 인도의 지도적 역할을 환영하고 독려



한다”며 “양국은 다른 나라에 대한 지배욕 없이 모든 나라에 안정과 번영을 가져다줄 미래 실현의 의지를 갖춘 지도국들”이라고 강조함.

- 싱 총리는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조 바이든 부통령 등과 함께 한 오찬에서 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번영과 안정을 이루는데서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함. 오바마 대통령은 싱 총리의 내년 초청을 받아들였으며, 양국은 또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S.M. 크리쉬나 인도 외무장관의 서명을 통해 청정에너지 개발 협력 등 8개의 양해각서를 체결함.



[참고 1] <유럽 통합과정 주요 일지>(연합뉴스, 11/29)

- (브뤼셀=연합뉴스) 김영목 특파원 = 유럽연합(EU)의 정치통합을 공고히 하고 의사결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리스본조약 비준안이 마침내 12월 1일 발효된다.
- ‘EU 대통령’으로도 불리는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를 신설하고 의사결정 구조를 효율화·명료화하는 리스본조약의 발효는 EU의 숙원인 정치통합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은 유럽통합과 관련한 주요 사건의 일지.

- ▲1951년 4월 = 독일,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 6개국 유럽석탄철강공동체(ESCE) 창설(파리조약)
- ▲1957년 3월 = 유럽경제공동체(EEC)와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창설(로마조약)
- ▲1967년 7월 = EEC·ECSC·EURATOM을 통합한 유럽공동체(EC) 출범
- ▲1968년 7월 = 공산품 거래 관세와 수량제한 철폐 등 관세동맹 결성
- ▲1973년 1월 = 덴마크, 영국, 아일랜드 EC 가입(9개 회원국)
- ▲1979년 3월 = 유럽통화제도(EMS) 출범
- ▲1981년 1월 = 그리스 EC 가입(10개 회원국)
- ▲1986년 1월 = 포르투갈, 스페인 EC 가입(12개 회원국)
- ▲1990년 6월 = 국경통제를 폐지하는 쉥겐협정 체결
- ▲1992년 2월 = 유럽통화동맹(EMU)과 EC를 유럽연합(EU)으로 개칭하는 마스트리히트조약 체결. 단일통화정책 시작
- ▲1995년 1월 =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EU 가입(15개 회원국)
- ▲1999년 1월 = 단일 화폐인 유로화 출범
- ▲2000년 12월 = 회원국 확대 위한 기구 개혁 합의(니스조약)
- ▲2001년 12월 = ‘유럽장래문제협의회’를 구성키로 합의
- ▲2004년 5월 = 헝가리, 폴란드, 체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키프로스 EU 가입(25개 회원국)
- ▲2004년 6월 = 정상회의서 헌법조약 합의
- ▲2005년 5월 = 프랑스 국민투표서 헌법조약 비준동의안 부결
- ▲2005년 6월 = 네덜란드 국민투표서 헌법조약 비준동의안 부결
- ▲2007년 1월 = 루마니아, 불가리아 EU 가입(27개 회원국)
- ▲2007년 6월 = 정상회의서 헌법조약 대체 개정조약(리스본조약) 초안 합의
- ▲2008년 6월 = 아일랜드 국민투표서 리스본조약 비준동의안 부결
- ▲2009년 10월 = 아일랜드 2차 국민투표서 리스본조약 비준동의안 승인
- ▲2009년 11월 = 체코, 27개 회원국 마지막으로 리스본조약 비준안 서명



▲2009년 12월 = 리스본조약 발효

economian@yna.co.kr

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9/11/27/0503000000AKR20091127184800098>.
HTML

[참고 2] <표> 국가별 수출수입 현황(연합뉴스, 11/26)

◇ 수출 상위·하위 10개국

(단위: 천불)

상위 10개국			하위 10개국		
연번	국가명	수출금액	연번	국가명	수출금액
1	중국	69,427,033	1	피트카이른	0
2	미국	30,797,826	1	세인트피레 미켈론	0
3	일본	17,606,865	1	안타티카	0
4	홍콩	15,746,424	1	교황청	0
5	싱가포르	11,113,303	1	크리스마스 아일랜드	0
6	마셜군도	8,160,071	1	마이너 아우틀링 합중국 군도	0
7	대만	7,340,935	7	코스 군도	2
8	독일	6,728,034	7	남조지아 & 남샌 드위치 군도	2
9	인디아	6,364,457	9	몬트세라트	7
10	멕시코	5,950,306	10	포클랜드 군도	8
소계	상위 10개국	179,235,254			
총계	수출 총액	294,043,916			



◇ 수입 상위 10개국

상위 10개국		
연번	국가명	수입금액
1	중국	43,918,666
2	일본	39,868,056
3	미국	23,406,750
4	사우디아라비아	16,078,400
5	호주	12,145,931
6	독일	9,819,149
7	대만	8,056,314
8	아랍에미리트연합	7,755,413
9	인도네시아	7,202,710
10	싱가포르	6,639,202
소계	상위 10개국	174,890,591
총계	수입 총액	260,268,418

◇ 무역수지 상위·하위 10개국

상위 10개국			하위 10개국		
연번	국가명	무역수지	연번	국가명	무역수지
1	중국	25,508,367	1	일본	-22,261,190
2	홍콩	14,519,985	2	사우디아라비아	-12,956,176
3	마셜군도	8,120,230	3	호주	-7,953,119
4	미국	7,391,076	4	쿠웨이트	-5,690,133
5	멕시코	5,160,957	5	카타르	-5,460,402
6	싱가포르	4,474,101	6	아랍에미리트연합	-3,476,067
7	라이베리아	3,743,748	7	독일	-3,091,115
8	베트남	3,724,446	8	말레이시아	-2,848,084
9	폴란드	3,206,994	9	오만	-2,842,574
10	인디아	3,171,866	10	인도네시아	-2,367,833

(자료=관세청) (서울=연합뉴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9/11/25/0503000000AKR20091125170200002.HTML>